

진안군, 아동·보육사업 강화

군 자체 지역아동센터 8개·어린이집 6개 사업에 3억5900만원 지원

진안군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아동·보육정책을 강화하고 나섰다.

군은 27일 2016년말 현재 만 17세 이하 아동은 전체 인구의 12.1%(3,162명)로 올해 아동·보육사업에 67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진안군은 재정자립도가 13.26%로 열악한 재정 상황이지만 타 시군과 차별화된 군 자체사업으로 총 14개사업에 3억5,9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군은 맞벌이 부부나 양육부담을 가치고 있는 부모가 일과 가정을 양립하고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그동안 아동·보육 관련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지금까지의 아동·보육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에 한정되어 전국과 동일하게 추진해 왔다면 2015년부터는 지역에 맞는 군 자체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한 것이다.

우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8개 사업을 지원한다.

그 세부사업은 차량운영비, 냉·난방비, 문화체험비, 30인 이상 시설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 종사자처우개선비 추가 지원, 국도미지원시설 운영비,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아동캠프 지원 사업이다.

또한 어린이집에 대해 6개 사업을 지원한다.

세부사업으로 보육교직원 근무장려수당, 보육교직원역량강화, 보육이동

한마음대회, 취사도우미 인건비지원, 차량운영비 추가지원, 급간식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는 장난감도서관을 개설하여 장난감과 유아용품들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로써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 아동들에게 놀이문화 제공은 물론 장난감을 수시로 사야하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지역주민과 아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항로 군수는 "앞으로도 아동이 미래의 주역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보며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무주군 '장터 의료건강검진센터' 내달1일~10월 30일 운영

무주군이 2017년 장터 의료건강검진센터 운영계획을 밝혔다.

무주읍 반딧불장터와 무풍면 대덕산장터, 설천면 삼도봉장터, 안성면 덕유산장터를 찾아가 주민들을 만나는 장터 의료건강검진센터는 내달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운영 예정으로, 반딧불장터에서는 매월 첫째 주 장날(1일, 6일), 대덕산장터에서는 둘째 주 장날(3일, 8일), 삼도봉장터에서는 셋째 주 장날(2일, 7일), 덕유산장터에서는 넷째 주 장날(5일, 10일)에 운영한다.

아울러, 무주보건의료원 박인자 방문보건 담당은 "농번기 병원을 찾은 여유가 없는 주민들이 장날 장터에서 건강검진과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한다"며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건강검진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장터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장터 의료건강검진센터에는 무주보건의료원 통합 건강검진 전문인력 등 11명이 주민들의 기초건강검진(혈압·혈당·콜레스테롤 수치 측정)과 기초체력측정, 체성분 분석, 치매상담 및 선별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금연을 비롯한 체질에 맞는 구강·영양상담, 자살예방 및 우울증검사와 정신건강상담도 진행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장터 의료건강검진센터 운영 소식을 들은 주민들은 "농사짓기 바쁠 때는 어디가 아파도 병원 갈 엄두는 아예 못낸다"며 "그래도 장날에는 농사에 필요한 걸 사러도 시장에도 가고 하니 꼭 이용해볼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군, '봄,봄,봄' 문화행사 개최

무주군은 "봄,봄,봄" 문화행사가 오는 29일과 내달 5일, 12일에 무주군청 후정 무대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사)무주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가 주관하는 행사는 전시·체험행사(식물심기, 필트, 유림자수, 캘리그래피)는 오후 2시부터, 공연은 저녁 7시부터 개최될 예정이다.

오는 29일 수요일 첫 공연에는 난타춤소리예술단(난타)을 비롯한 김수경 씨(플루트), 황종애 씨(한국무용), 양상모 씨(민요), 셋뚜리(노래), 판테라(댄스), 정현선 씨(색소폰)의 공연이 펼쳐지며, 내달 5일에는 부르미(색소폰), 필리핀 전통춤, 이정자 씨(노래) 공연이, 12일에는 빛타(난타), 철원팔색소폰(색소폰), 진금순(노래), 여우소리(통기타), 이유밴드(밴드)의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완주군, 자동기상관측시스템 고산 만경강 수변공원부지 이전

완주군이 자동기상관측시스템(AWS)을 고산면 만경강 수변공원 부지로 이전했다.

27일 군은 자동기상관측시스템(AWS: Automatic Weather System)을 고산면 소항리 안남마을 앞 만경강 수변공원 부지로 이전 설치했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장수군, 목조문화재 합동 소방훈련

장수군은 27일 국가지정문화재인 장수향교에서 「목조문화재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은 장수향교 인근 산에서 산불발생으로 장수향교 대상전이 연소되는 상황을 가정, 무진장소방서와 장수119안전센터, 장수군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 20여 명과 소방차량 2대, 산불진화차량 1대를 동원해 화재진압훈련을 진행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행정조직 명칭 '담당' → '팀' 변경

업무효율성·조직경쟁력 제고... 직위 명칭 '담당' → '팀장' 으로 변경

진안군은 균형 조직명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해 군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균정을 펼친다.

군은 지금까지 사용해온 담당 명칭이 직위 명칭과 중복되고 민원인들이 업무담당자와의 명확한 구분에도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행정조직의 기본단위인 현 '담당' 명칭을 '팀'으로 변경하고, 직위 명칭도 '담당'에서 '팀장'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균형 조직 내의 직위명인 '담당'이 실무자를 지칭하는 '담당자'와 유사해 군민과 민원인에게 혼란을 주는 등 불편함이 있어 명칭 정비를 통해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군민과 민원인들이 조직의 역할과 담당

업무를 직관적이고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 편의를 한층 높이고자 이번 행정조직 명칭을 변경하게 됐다.

군은 이번 정비를 통해 분청을 비롯한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조직의 '분야'를 '팀'으로 변경하고 팀의 총괄책임자는 '팀장'으로 대외직명을 변경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이번 팀장 명칭 사용을 통해 대외업무 처리 시 효율성을 높이고 직원 사기 진작에도 기여하는 한편 중간관리자로서의 책임의식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명칭 변경을 위해 군은 근거법규인 '진안군 업무담당'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을 지난 20일 개정하고, 이에 따른 관련 자치법규 정

비와 팀(장) 명칭의 조기 정착 등에 힘을 기울인다.

군 관계자는 "지난 1998년부터 사용한 담당제의 경우 '담당'이라는 호칭이 익숙치 않아 기존 '계장'을 혼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담당자'와 '담당'에 대해 주민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등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어 주민 편의를 위해 새롭게 팀제로 변경하는 것"이라며, "팀(장) 명칭 사용을 통해 그동안 다소 모호했던 조직 명칭을 명확히 하고, 팀장의 사기 진작은 물론 전체 조직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도내에서 팀(장)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행정기관은 전라북도를 포함해 완주군, 장수군, 임실군, 부안군, 고창군 등 6곳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장수고·백화여고 방문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장수군은 화업 등으로 읍·면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방문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학교방문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는 학교수업 등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만 17세가 되는 관내 고등학생을 위해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 신규로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는 서비스이다.

이에 금년부터 분기별로 담당공무원

이 학교를 방문, 신규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는 맞춤형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하고, 지난 23일 장수고, 백화여고 학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29명의 학생들에게 발급서비스를 제공해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주민등록증은 만 17세가 되는 다음 달부터 1년 내에 발급해야 하나 수능과 학업일정으로 바쁜 학생들이 신청기한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발생하

했다.

장수군 관계자는 "이번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로 학생들이 학업부담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해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현장행정으로 고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군민들의 민원편의 서비스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완주군, '도시민 귀농학교' 진행

완주군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2박3일 과정으로 귀농귀촌에 관심 있는 도시민 35명을 대상으로 완주 일원에서 도시민 귀농학교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로컬푸드 1번지 완주군의 농업농촌활력증진을 소개하고 선배 귀농인 사례발표와 농가 및 로컬푸드 직매장·가공센터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선배 귀농인들의 생생한 귀농창업 사례를 들을 수 있어 귀농계획을 현실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입을 모았다.

특히 로컬푸드와 가공센터를 기반으로 하는 완주군만의 차별화된 귀농귀촌정책 설명을 들 때는 작물선택, 주거정보 및 농촌주거에 관한 구체적

인 질문들이 이어지는 등 큰 관심을 나타냈다.

강령석 농업농촌식품과장은 "행정과 주민이 한 마음으로 진행한 각종 사업의 성과가 완주는 살만하다는 인식으로 이어져 2016년도에는 1614세대가 완주군으로 귀농귀촌했다"며 "앞으로 완주군은 귀농귀촌 유치 뿐 아니라,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지난해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1년 동안 영농교육을 배울 수 있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완공해 올해 10세대, 24명으로 이어지게 하는 등 지속가능하고 내실 있는 귀농귀촌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대한민국홍삼특구 진안고원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眞心 홍삼주




대한민국 홍삼특구 진안홍삼 · Korea Jinan Hongsam

www.jinansam.com 사)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 063-433-8398

AUTHENTICATION CERTIFICATE of Quality
진안홍삼연구소가 검사, 관리하고 진안군이 품질을 인증한 제품에만 사용되는 마크입니다.